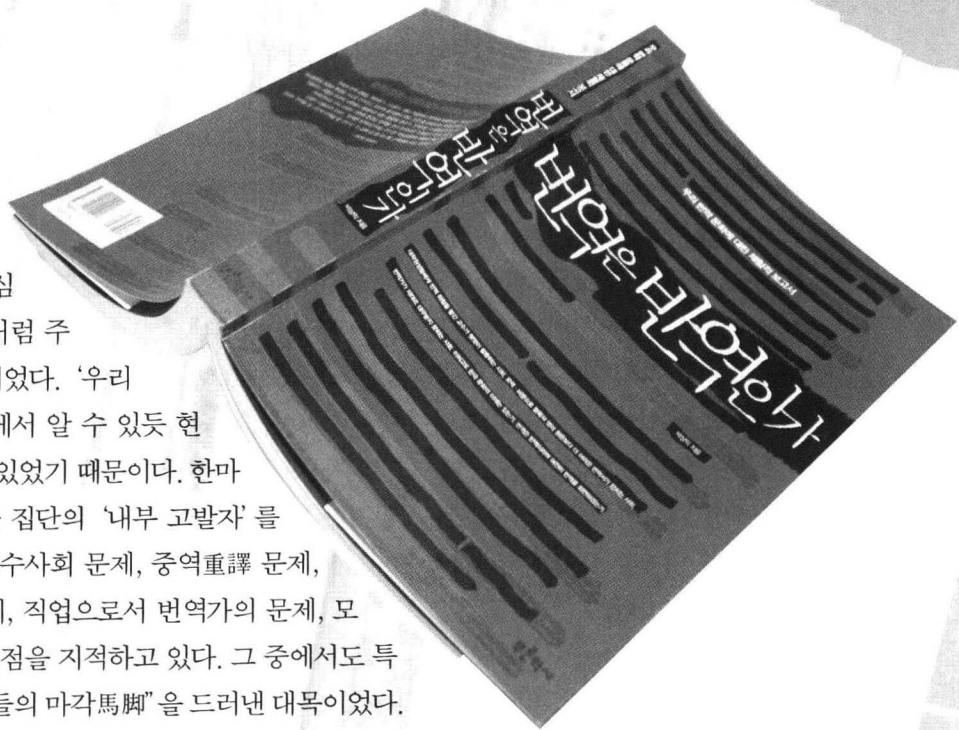


번역문화의 오류, '교정 시급'

번역풍토 '내부 고발' 《번역은 반역인가》눈길
대학원생 대리 번역, 불성실 번역 등 고질적 관행 여전

박 상익 교수의 《번역은 반역인가》는 지난 3월에 출간되자마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일반 대중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번역'을 다룬 이 책이 이처럼 주목받은 이유는 그 내용의 새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 번역 문화에 대한 체험적 보고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현장에서 경험한 저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수이자 번역가인 저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 책은 사전문제, 교수사회 문제, 중역重譯 문제, 도서관 문제, 편집자와 번역자와의 관계 문제, 직업으로서 번역가의 문제, 모국어문제, 오역문제 등 번역문화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교수사회 문제 즉 "명사들의 마각馬脚"을 드러낸 대목이었다.



오역, 중역, 부정확한 사전... '명사들의 마각馬脚' 고발

박 교수는 대학생 시절 고전 독서 모임에서 단테의 《신곡》을 함께 읽은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탈리아어를 몰랐던 박 교수는 영역본 몇 종류와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의 어느 대학 이탈리아어과에 재직하는 교수가 번역한 《단테》를 함께 읽었다. 그러나 영역본과 우리말 번역을 대조하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박 교수는 이렇게 적고 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에 띄는 무수한 오역들 때문에 도저히 내용 파악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한마디로 '충격과 경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극심한 '배신감'으로 연결되었다. 명사들의 마각馬脚을 본 셈이었다.”

그때가 70년대였지만 몇 십 년이 흘러도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 몇 해 전에 읽은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번역자가 서울대학교 총장과 대학민국 학술원 회장까지 지낸 명망 있는 원로 경제학자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황우석 사건에서도 문제화됐던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종속적 관계가 번역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번역거리를 던져주면 학생들은 밤새워 번역 작업에 매달리고 교수는 그 결과물은 가져다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다. 원서보다 더 어려운 번역서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박 교수는 안정효가 《번역의 테크닉》에서 조교에게 대신 번역시킨 원고를 출판하는 행위는 대학 교수라는 신분과 명성에 의지한 '매춘행위'라고 꼬집은 사실을 상기시킨다. 문제는 이러한 '매춘'이 '이 순간에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번역 경시는 지식인의 반역이다>라

우리 인문학은 해방 이후 한 번도 잘 나가본 적이 없었다.
 떡잎 단계부터 영양실조 상태로 비실대며 오늘에 이른 것이 인문학이다.
 그리고 번역 작업을 통해 텍스트를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 우리 인문학의 어두운 공백은
 오랫동안 후학들에게 부담스런 짐이 될 것이다.

는 제목으로 2001년 <주간동아>(제279호)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을 때 보인 독자들의 반응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이 '사건'은 책의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결코 극소수의 교수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 더구나 실력과 명성에서 공히 인정받는 교수 중에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다는 점은 얼마나 이런 일이 심각한 수준인지 알려주는 것이다.”(‘지나가는 이’라는 ID의 네티즌)

대학원생들에 ‘히칭’…편집자 새로 번역도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시켜서 싸구려 번역을 해오고 편집자는 미친 듯이 밤을 새워가며 그걸 거의 100% 다시 번역(운문이 아니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의미가 쉽고 선명하게 다사 드러난 번역문을 보며 흐린 우리창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과연 편집자의 몫인가라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 ‘교수’라는 사람들은 대학원생과 편집자의 피땀을 가로채서 번역료를 챙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박 교수에게 메일을 보낸 한 출판편집자)

박 교수는 저명 학자들의 조악한 번역서들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교수 본인이 불성실하게 번역한 경우다. 박 교수는 명색이 교수라면서 일개 대학생에게 책잡힐 정도로 부실한 번역을 했다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둘째로 대학원생들에게 적당히 나눠 번역을 맡긴 다음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경우다. 이것은 도덕 불감증 차원을 넘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인문학의 위기’란 말에 박 교수는 코웃음을 친다. ‘위기’란 한창 잘 나가다가 추락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다.

“우리 인문학은 해방 이후 한 번도 잘 나가본 적이 없었다. 떡잎 단계부터 영양실조 상태로 비실대며 오늘에 이른 것이 인문학이다. 그리고 번역 작업을 통해 텍스트

를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 우리 인문학의 어두운 공백은 오랫동안 후학들에게 부담스런 짐이 될 것이다.”

교수업적평가 ‘번역은 무관’…열악한 대우와 인식

물론 여기에는 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승진과 재임용에 기준이 되는 교수업적평가에 번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풍토다. 결국 교수들은 재임용을 위해 번역은 외면한 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논문만 쓰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로 영문학자인 이재호 명예교수는 “영문학 교수에게 번역을 하지 말고 논문만을 쓰라는 것은 무용가에게 무용은 하지 말고 논문만 쓰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편집자들과 번역자들 역시 현재의 출판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번역서를 내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 대우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 번역출판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편집자는 “출판사도 번역료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번역자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데 굳이 출판사에서 알아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절(원고지 매수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인세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로 했을 경우 현재 번역가들이 받는 원고료는 장당 3,000원, 3,500원 정도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부지런히 했을 경우 한 달에 보통 600~700매를 번역한다고 봤을 때 2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 몇몇 잘나가는 경우고, 문인들의 원고료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번역가들이 버는 번역료는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제법 잘나가는 한 번역가는 직업만족도를 물어본 질문에 “5로 나누었을 때 3정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원고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인으로서의 박탈감이 더 커진다”고 한탄했다. **★**

취재_신동섭 기자